



| 기다림은 현실로

허규 베네딕토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순탄치 않았습니니다.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어렵게 탈출한 후 하느님께서 알려준 땅에 정착하여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번영을 누리는 것 같았지만 이내 두 나라로 분열합니다. 그리고 두 나라 모두 침략을 받아 멸망하고 맙니다. 또 그들에게 종교적으로 가장 중요했던 성전 역시 파괴됩니다. 나라를 잃은 것뿐만 아니라 같은 민족들이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아야 했던 유배의 시간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고통의 시간이자 하느님과의 관계를 되돌아보는 참회의 시간이었습니다. 유배 이후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지만 여전히 일부의 사람들은 외국에 남아 있었고 돌아온 이들은 무너진 성전을 복구하고 제도를 정비하는 힘겨운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역사 안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것은 흩어진 백성을 한데 모으는 것이었고, 하느님이 주신 땅에서 하나의 나라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족의 희망은 종교 안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가졌던 메시아에 대한 기다림은 구원에 대한 희망이기도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흩어진 백성을 모아 하느님의 정의를 실현할 하나의 나라에 대한 열망을 담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기다림은 예수님의 탄생으로 현실이 됩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준비하던 요한은 사람들을 보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오실 분이 선생님이십니까? 아니면 저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알고 있는 이들에게 그 답

은 자명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기다리던 분이요, 그분은 이제 이 땅에서 하느님의 일을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눈먼 이들이 보고 다리 저는 이들이 제대로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슴 이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되살아나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는다.” 구약성경에서 예고된 이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다는 것은 사람들의 기다림이 성취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기다림은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은 그것을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예수님의 재림을, 다시 오심을, 종말을, 하느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생명을 기다립니다. 물론 우리 안에 하느님의 나라가 있지만, 그 완성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매년 대림 시기를 통해 준비하고 기억하는 예수님의 탄생은 기다림이 단지 이상이 아니라 현실이 되리라는 약속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다시 오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보증인 셈입니다.

이제 대림 시기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기다림이 현실이 되는 것을 기억하며 우리 안에 오시는 주님을 희망 안에서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예언자의 선포가 당시의 사람들에게 그랬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위로와 용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맥 풀린 손에 힘을 붙여 넣고 꺾인 무릎에 힘을 돋우어라.”



목4동성당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중앙남로9가길 10

중화동성당 목4동성당 반포1동성당



목4동성당은 2008년 8월 목3동·화곡2동·목5동성당을 모본당으로 설립되었습니다. 1972년 등촌동 공소가 발족하면서부터 현 목3동성당 소속으로 신앙생활을 하던 신자들은 이후 1987년 목1동성당(현 목5동성당)이 본당으로 승격해 분당하면서 목3동성당과 그보다 가까운 목1동성당 양쪽으로 흩어져 미사 참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목4동 신자들은 신앙의 구심점으로 본당을 염원하게 되어 목4동성당이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2008년 9월 첫 미사를 드리고, 2012년 새 성전 건축을 추진하여 2016년 1월 성전 기공식, 2017년 10월 새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였습니다.

김명중 시몬 신부 | 문화홍보국 차장